

RaonAtti 5th

CAMBODIA

<3월 보고서>



<차 례 >

1 . 우리 들 의 한 달 소 감

2 . 3 월 스 케 줄 표

3 . 활 동 보 고

3 - 1 . 밥 퍼

3 - 2 . 빵 퍼

3 - 3 . 프놈 크 라 운 중 학 교 한 국 어 교 실

3 - 4 . 유 치 원 놀 이 교 실

3 - 5 . 빵 퍼 / 밥 퍼 S T E P 한 국 어 교 육

3 - 6 . 쌀 라 아 락 모 집

3 - 7 . 한 글 학 교

4 . 문 화 체 험

5 . 다 일 F a m i l y 소 개

6 . 3 월 사 진 전

<우리들의 한달 소감>



새로운 시작의 한달
쉽지만은 많은 생활이지만 즐거운 시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활기차게!!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쑥쑥(파이팅)

캄보디아에 온 지 어느새 한달.. 빠르게 지나가는
매일이 아쉽기만 하다. 내가 이곳의 사람들과 함
께 해서 행복한 만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함
으로 인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행복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한달이면 흥
분한 것 같다. 좀 더우면 어떻고, 좀 불편하면
어떤가 행복한데!! 하루하루를 붙잡아두고 싶은
만큼 이곳이, 여기 사람들이 참 좋다.

자전거에 열쇠가 필요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
1\$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
이보다 신나는 일이 있을까?
매일 매일이 나에게겐 썬바이 썬바이~!



시원한 콜라 한잔에 녹아있는 탄산처럼
나 또한 캄보디아 생활에 녹아들고 있다.
Anyway, 목으로 넘어갈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을
모두에게 전해주고 싶다.

〈스케줄표〉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0:00			샘물다일 유치원 수업		쫄크니어 유치원 수업	
10:00 -11:00	프놈끄라 운중학교 한국어 교실	밥퍼	프놈끄라 운중학 교 한국 어 교실	밥퍼	유치원 선생님 수업	시엠립 한글학교
11:00- 12:00					밥퍼 / 도 서관교육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크메르어 수업		크메르어 수업			
15:00 - 16:00		스텝 한 국어 교 육		스텝 한 국어 교 육		
기타				코디네이 터 회의		

<활동보고>

밥퍼



라온아띠 캄보디아팀의 가장 주된 사업 중 하나이다. 공식적인 스케줄로는 주 2회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매일 참여하는 활동이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준비를 하고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하여 11시 30분이면 배식이 끝난다. 배식 후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나면 12시에 활동이 마무리 된다.

<활동보고>

빵퍼



톤레샵 근처에 사는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정식적인 스케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밥퍼가 끝난 후에 도와주는 활동이다. 하루에 약 700개에서 1200개의 빵을 만들며 만들어진 빵을 포장하여 톤레샵의 수상마을로 가서 나눠주면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 활동 보고 >

프놈프라움 중학교 한국어 교실

프놈프라움 중학교 한국어 교실은 기존 선배기수 라온아띠가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수업이다. 올해에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현재 학년별 2개 반으로 나누어 주 2회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7학년

- 담당 선생님 : 여세린, 이정석, 문희진
- 수업기간 : 2011. 3 ~ 7
- 수업인원 : 45~55명
- 장소 : KB도서관 2층 Class Room1
- 세부내용
: 학생별 실력편차가 심해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
: 수준에 맞는 수업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 배부

8학년

- 담당 선생님 : 이유정, 한상우
- 수업기간 : 2011. 3 ~ 7
- 수업인원 : 40~50명
- 장소 : KB도서관 2층 Class Room2
- 세부내용
: 전반적으로 자음, 모음 읽고 쓰는 것 숙달
: 수준에 맞는 수업 프린터를 직접 만들어 배부
: 수업(30분) + 놀이를 통한 수업내용 복습(20분)



< 활동 보고 >

유치원 놀이교실

유치원 아동대상 관련 교육은 기존에 진행하던 팀이 빠져나감으로써 라온 아띠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다. 약 4~7세가량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또는 뛰어놀 수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업 전 유치원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사전 활동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샘물다일유치원과 꿩 크니어 수상유치원에서 주 1회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샘물 다일
유치원

- 40명씩 2개 반으로 총 80여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음
- 2011년 3월 4일에 개원함

꿩 크니어
수상 유치원

- 30명씩 2개 반으로 총 60여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음



< 활동 보고 >

빵퍼/밥퍼 STEP 한국어 교육

스텝교육은 밥퍼와 빵퍼, office에 있는 스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회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총 17명의 스텝들을 수준별로 나누어 기초반 8명, 초급반 8명, 고급반 1명을 맡아서 일상 회화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 활동 보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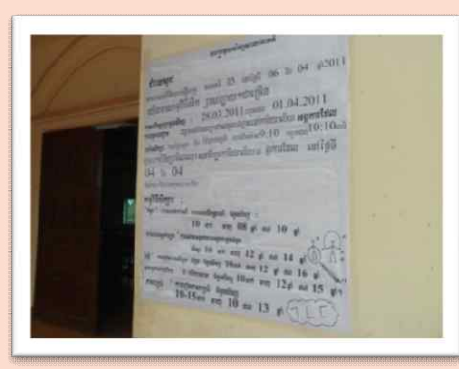
쌀라아띠 모집

쌀라아띠는 프놈프라움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 교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미술, 리코더, 음악줄넘기, 율동, 한국어 교실 등 총 5개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 2회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과정

- 큰 전지에 크메르어로 번역한 모집공고를 제작하여 벽보형식으로 홍보
- 신청서를 만들어 사무실에 비치 → 직접 작성하여 제출
- 많은 교육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 센터 내 직접 홍보활동 병행 <모집내용>

- 1) 2011. 3. 31 ~ 4. 4일까지 신청서 접수
- 2) 2011. 4. 4 신청자 공지
- 3) 매주 화, 목요일 오전9시~10시까지 수업
- 4) 모집내용
 미술교실, 10명 모집, 연령 8~10세
 리코더 교실, 10명 모집, 연령 12~14세
 음악줄넘기 교실, 10명 모집, 연령 12~16세
 율동교실, 10명 모집, 연령 12~15세
 한국어 교실, 10~15명 모집, 연령 10~13세



< 활동 보고 >

한글학교

한글학교에서는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교육을 한국의 커리큘럼대로 진행한다. 아띠들은 기초반부터 5학년까지의 수업을 맡아 매주 토요일에 3시간씩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특종

“봉사를 미끼로 문화체험 활동 시행 파문...”



썸발 기자

최근 3월 캄보디아 아띠팀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져 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썸발 기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있는 썸발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여기있는 아띠들은 현재 매우 흥분한 상태로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죠.”



분르 (23): “처음에 는 봉사하려 가겠다 해서 완전 기대했더니! 호수에서 배를 타고, 사진을 찍고, 뱀을 들게 하는 등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호수 간데서 호수 수로 파려 가는 줄 알고 완전 기대를 했는...”



브리수왓 (25): “아니! 기껏 일하러 와서 한다는게 캄보디아 민속촌 가서 아이들과 놀고, 불상구경하고, 맛있는것 먹고! 어디 이게 일입니까? 저는 저의 끓는 피를 캄보디아에 뿌리러 왔습니다요!”



Tonle Sap 호수의 수상 가옥들



일
취..

사건의 발단을 이렇습니다. 3월에 캄보디아에 도착한 아
띠들은 다일 공동체에서 기거하며 각종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에 잔뜩 설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속과는 다르게 다일 원장님께서 호수에 일하러 가자
며 배를 타고 수상가옥 둘러보기를 하거나, 캄보디아
민속촌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도로 캄보디아
지역 공부 하기 또는, 동상에
써있는 어 알기 등 크메르

캄보디아 전통 민속촌에서..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아침과 저녁에는
한국에서도 접하지 못한 각종 한식과 열
대과일을 무한정 제공하며 아띠들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아
띠들이 자기들에게도 진정한 일을 달라며
단체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쏘피읍 (23): “저는 일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맛있
는 밥 좀 그만 주세요 ㅊ 제 삶은 어찌합니까?”

다라(24): “아이들과도 매일 노는데 제발 앙코르 왓
가란 말은 말아주세요~ 또 놀아야 하잖아요 ㅠ.ㅠ”

이들은 이번 3월 동안 너무 놀고 먹은 게 아니냐며
근무 조건이 더 힘든 곳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에는 과연 이들의 불만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에서 썸발 기자였습니다.



<다 일 Family 소개>



김형길 원장님 (41)
 캄보디아 시엠립 다일공동체 식구들을 이
 끌고 있는, 우리의 코디네이터 김형길 원
 장님. 바쁜 일정과 마라톤 회의 속에서도
 매주매주 우리들과의 시간은 꼭 내어주시
 고, 아띠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지지
 하고 응원해주는 멋진 분! 큰 키와 환한
 웃음이 원장님의 매력포인트다.

김수민 부원장님 (35)

세 딸을 둔 엄마이지만 마음만은 늘 20
 대! 젊은 감성을 가진 소녀같은 부원장
 님은 손짓발짓으로 크메르어 대화를 가
 장 잘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원장님과
 함께 '아띠' 라면 무조건적으로 신뢰
 해주시는 분이며, 우리 생활 하나하나를
 꼼꼼히 신경써주시는 '아띠들의 엄마'
 라고 할 수 있다.



김계숙 선생님
 김계숙 선생님은 한국에서 간호장교로 근
 무하시다 지금 3년째 시엠립 다일공동체
 클리닉에서 의료지원을 해주신다.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셔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본보기가 되어주신다. 또 라온아띠를
 2기때부터 꼭 봐오셔서 우리에게 대해 누구
 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며, 아낌없이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기도. 뿐만 아니라
 선생님 덕분에 아띠들은 아파도 걱정은 뚝!



리명덕 선생님 (22)

다일 패밀리 중 유일하게 우리 또래인 명덕이! 명덕샘은 다일공동체 빵퍼 전체를 책임지는 빵퍼 캡틴이다. 조선족 출신이라 특유의 억양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대모사가 가능할 정도로 강렬하다ㅋㅋ 얼마 전에는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염색을 해서(아띠들이 집에서 직접해줬다!) 머리가 한결 차분해지고 정돈됐다. 4기에 이어 5기에게도 여전히 라온아띠 제6의 멤버이다^^

황정경 선생님 (34)
작년 kbs '사랑의 리퀘스트' 에도 방영되었던 다일공동체 중창단을 이끌고 있는 정경 선생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현재 6개월째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늘 센터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다 선생님의 땀과 노력의 결실! 얼마 전부터는 빵퍼 일도 맡아서 요즘엔 새로운 빵 만들기에 한창이시다. 3월 한달동안 적응하느라 바빴던 우리에게 깨알같은 현지 정보들을 마구 마구 전해주시신 선배님이기도^^.



조현정 선생님 (30)

“원투쓰리포, 파이브식스세븐에잇!!!” 센터에서 가장 파워풀한 목소리의 주인공, 현정 선생님은 댄스팀을 맡아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수업을 할 때마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도 많다! 우리보다 6개월 먼저 캄보디아 생활을 시작한 현정 선생님은 현지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는 것과 물건 깎는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가히 1인자라 할 수 있다.





찐룬쌤

다일공동체는 물론 우리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그 분, 찐룬쌤! 현지 통역과 우리들의 크메르어 수업을 맡고 있으며, 크메르어,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영어까지 무려 4개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능력자' 다. 게다가 잘생기고 착한 찐룬 선생님은 캄보디아인, 한국인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데, 송싸(애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다.

최윤정 팀장님 (34)

우리보다 한 달 빠른 2월에 캄보디아로 오셔서 새로운 가족이 된 윤정팀장님은 다일의 예산관리와 아동결연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유일하게 아띠들과 같은 2층에서 방을 쓰고 계신 우리의 이웃사촌! 함께 크메르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다음주' 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실 예정이라 언제나 질문의 80%는 이미 배운 내용이다ㅋㅋㅋ



이명진 선생님 (29)

명진 선생님은 이번 3월 말 가장 늦게 캄보디아에 왔는데, 처음 왔을 때 178cm의 큰 키로 남자단원들의 단번에 주눅들게 한 장본인이다. 스물아홉살이지만 현지 사람들에게겐 항상 르페이브람(스물다섯)이라고 말하면서 캄보디아식 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늦게 왔지만 크메르어 수업은 가장 열심이어서 누구 못지않게 크메르어를 잘하며, 어딜가나 크메르어로 대화를 시도한다!



Coming Soon!!

다음달에는 밥퍼, 빵퍼, 오피스 등 시엠립 다일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스텝들의 소개가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3월 사진전>



김학용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Happy
Birthday to
Hee Jin!!



우리의 통역사
쏘페약
생일축하해!!



김형길 원장님,
생신축하드려염!!





남끼♡리싸
결혼 축하해요!!

센터 아이들과
즐거운 파티타임
Let's Dance!!



출츠남엔 파우더를
부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잇힝